

시론



남성욱

-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확대되는 북한 군수경제, 쪼그라드는 민수경제: 북리의 위험한 군사 밀월(蜜月)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에야 오사무(惠谷治) (1946-2018)씨는 1998년 도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경제를 4중(重)경제라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분석했다. 북한경제는 내각의 제1경제, 군수경제인 제2경제, 김정은의 궁정(宮庭)경제인 제3경제, 마지막으로 장마당 시장경제 등 4바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1998).

이 중 궁정경제와 군수경제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수령의 비자금 조달을 위한 궁정경제(court economy)는 노동당 39호실이 담당한다. 1970년 중반에 조직된 39호실은 김일성, 김정일 등 김씨 일가의 외화벌이를 총괄한다. 20여 곳의 해외지부와 국영기관을 운영한다. 과거에는 궁정경제가 4중경제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으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제2경제가 빠르게 증가하여 30%를 상회하며 제2경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반대로 내각과 장마당의 민수(民需)경제는 점점 쪼그라들어 40% 미만이다. 인민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의식주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다.

일찍이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거래 등 국가기밀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양이 일본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통해 신무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 회로 등 전자부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세미나 이후 오사무씨와 소통하며 일본측 자료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하는 8총국을 신설했다. ICBM 등 각종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 용악산(龍岳山), 부흥(復興), 창광(蒼光), 연합(連合) 등의 무역회사를 통해 홍콩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돈줄의 거래 통로를 마련했다. 용악산과 부흥무역은 러시아와, 창광무역은 중동을 주요무대로 활동하였다. 연합무역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의 수입을 담당하였다. 특히 잠수함과 전차 등 무기제조에 필요한 집적회로(IC) 기관(基板)과 미사일 유도시스템에 사용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일본에서 조달하였다. 일부 제품은 수화물로 위장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반하였다. 북한기업과 거래했던 조총련계 회사는 도쿄, 오사카, 니가타 등지에서 한때 약 30개소에 달했었다.

이후 국방공업의 '컴퓨터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 유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전략적인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였다. 조총련을 통한 신무기 부품 조달은 2006년 1차 북핵 실험이후 발효된 11건의 유엔 대북제재로 한계에 도달했다. 연료 체계, 엔진 및 각종 전자부품 등 신무기 부품 조달

루트는 미국의 감시가 미흡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이란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제2경제위원회'는 우리의 기재부는 물론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전체 방산업체 등이 결합된 무소불위의 부서다.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인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운영체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지휘한다.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서 제2경제위원회가 무기와 장비의 기획, 연구개발, 자금조달, 그리고 장비의 생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2경제위원회가 기획한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이 맡으며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와 장비의 생산은 각 군수공장이 담당한다. 내각은 군수용 전력과 자재 공급을 제공하며 제2경제위원회는 계획총국, 기술총국, 건설총국, 생산총국 등 분야별 총국을 두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개발, 생산, 분배, 대외무역 등을 수행한다. 산하에 160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핵심부품 공장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강도 강계 등 북·중 국경지대 지하에 건설하였으며 물자 조달에서 최우선 순위다. 무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외국 신무기를 사들여 철저하게 분석도 한다. 지난해 북한은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부당한 무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고 있다. 3개월 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실패하고 오는 10월 재발사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2경제위원회의 금고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김정일은 위성 발사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가 든다고 했으니

6개월 동안 최소 1조 2천억원 이상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각종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대목을 맞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전승절 행사를 빌미로 김정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평양 ‘무장장비 전시회-2023’에 초청하여 600mm 초대형 방사포, 미국이 보유한 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모양이 비슷한 전략무기 정찰기 및 무인공격기 등 최신무기를 과시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과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사정하여 무기를 구매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3개월 앞둔 1950년 3월 소련이 약 1억3000만 루블 어치의 무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총액 1억 3305만 루블 상당의 금 9t, 은 40t 및 우라늄이 함유된 희귀광물인 모나자이트 1만5000t을 인도하겠다고 사정하였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2023). 당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무기는 7.62mm 기관단총에 불과했었다. 결국 김일성은 당시 최강의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지원받아 남침을 감행했다. 지난 2년간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가 고갈된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 8월 2박 3일간 다수의 군수공장을 돌아보며 '국방경제사업'의 강화로 무기와 군수물자의 대량생산을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수

출용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의 주문 목록이 북한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표준형의 보병 및 포병 장비와 탄약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야전에서 가성비가 높은 무기들이다. 북한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SA-5)은 부품 상당수가 러시아제여서 무기 호환성이 높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용했던 사용했던 122mm 다연장 로켓탄을 노획해서 사용하였다.

북한은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넘기고 원유, 각종 신무기 부품 및 식량 등과 현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의 결제는 어렵고 루블화는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기존 노후 무기들을 실속있게 정리하면서 신무기 개발에 나서는 등 일거양득이다.

북한의 수출용 무기 대량생산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특히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북한의 군수산업과 군사적 위협은 한국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러 간에 무기거래는 단순 군수품을 넘어 북한군의 약점인 전투기 및 각종 미사일 무기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9월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사전에 경고장

을 보냈다. 미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교환하며 무기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은 뉴욕타임즈(NYT)는 미국과 동맹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장갑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9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사전에 ‘김빠기 전략’으로 정상회담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의 안보도 당장 위협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이전될 경우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핵·미사일 방어망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천궁 등으로 방공

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 지상이 아닌 동해 등 측면에서 날아오는 SLBM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등에는 취약하다.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밖에 막을 수 없다.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호주처럼 미국에서 핵잠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남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언제든지(whenever), ‘어디서든지(whatever)’, ‘무엇이든지(whatever)’ 3국 간 협력 가능한 ‘하라인 구축’은 동북아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불가피하다. 북·러 간에 확대되는 군사협력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고 우리 대응 중의 하나가 한미일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다.